

## 고려(918-1392)시대의 연표(朔閏表) 작성

한보식<sup>1,2</sup>, 양홍진<sup>1</sup>, 심경진<sup>1</sup>, 송두종<sup>1</sup>, 안영숙<sup>1</sup>

<sup>1</sup>천문대

<sup>2</sup>영남대학교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 시대에 대한 정확한 연표(年表)가 없어서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일자를 규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우리는 한국고대曆의 연표 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일차년도 사업으로 고려시대의朔日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고려시대의 연표(朔閏表)를 작성하고 있다.

고려 시대의 역일 자료는 주로 고려시대의 정통 史書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일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그 당시의 천문현상과 역사적인 사건, 사실 등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이 정리된 자료들의 비교는 중국과 일본의 연표 자료 또는 삭윤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려 시대의 사서 기록에서 월(月)의 기록 누락, 한 달내에 있을 수 없는 일진의 배열, 고려사 '世家'의 일진과 '志'의 일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자료등의 50여곳의 오기 및 누락 등을 발견하였다. 고려사의 기록 중 문제가 되는 일진은 진위여부를 판정하여 별도로 정리하였으며 주변에 참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일진은 천문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과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동시에 참고하여 일진을 결정하였다.